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마음은 무더질 대로 무더져 사고의 능력조차 잃은 채 살았습니다. 고독과 소외됨이 두려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불의를 묵인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원하지만 실상 그것은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유혹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작은 선행조차 떠벌리곤 했습니다. 이 끈질긴 허영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십시오. 주님이 앞서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로 힘써 나아가는 진리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1:3 인도자

♠ 교 독 문 17. 시편 65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함께

성경봉독 I. 창18:20-32 인도자

II. 요14:1-14 박범희 집사

찬 양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과의 대화 김광수 목사

II.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김광수 목사

거둬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이 미소를 짓게 하고,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의 숨결을 불어넣으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는 세상 길에서 멈칫거리며 세월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달려가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달콤한 가짜 행복에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7)/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35)/김기석 목사
기도 : 김용진 권사	기도 : 문인옥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안정숙 권사

3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준호 고광송 곽혜자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안길상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더욱 인간적인 인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 또는 지나간 과거의 날들에 대해 나는 그 어떤 향수도 느끼지 않는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 징징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더 진지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인류의 역사에 매우 관심이 많다. 곰곰이 살펴볼수록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앞서사람의 발자취를 뒷사람이 따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어내고, 밭을 일구고, 증기기관과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와 같지 않게 되었다.

우주에 대한 인식! 천문학자들은 이미 20억 개 이상의 성운들에 대해 알고 있고, 인공위성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들을 확인시켜준다. 접안렌즈를 눈에 대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무슨 사실을 들려주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나는 초조하게 기다린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경이로움에 들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잔혹성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선과 악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자유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신념에 도달한다.

인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양 진영의 대치 끝에 인류는 갑자기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양 진영이 대치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업의 위기에 내몰린 나머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을 보게 된다.

가장 부조리한 일은 과잉 생산과 초기근 현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풍요 때문에 인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들은 절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용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화가 진행되는 바람에 인간의 노동에 의해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다. 앞으로 인간은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인가? 이제 인간들은 생산하고, 먹고, 자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비록 혼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생활방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해내리라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새롭게 만든다.

인류의 일부는 사막으로 가서 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공동체에 합류한다. 또 다른 일부는 마약이나 살상을 위한 교역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사와 밀매꾼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 그들은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나간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그 모든 모순들과 우회적인 수단들을 거치면서 현재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진일 뿐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을 넘어선 인격, 즉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모든 것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합류시키기 위해 투쟁하게 될 사람들에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전해줄 게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이다.

“인생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실수

프랑스인 드 라 고르스는 <<하나님의 실수>>라는 책에서 딸과 나누었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엄마, 별들이 도는 방식이 너무나 경이로워요. 별들끼리는 결코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큰 실수였어요. 우리도 별들처럼 질서 있게 돌아다니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지금과 같은 무질서는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를 사랑하는 엄마도 없었을 테고, 나를 사랑하는 어린 딸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저 각각 제자리를 지키는 사물들만이 있었겠지.”

-아베 피에르, <<아베 피에르 신부의 유언>> 중에서

■ 마/음/으/로/위/는/글

어머니의 몸

단칸방에 살면서
시래기나물로 끼니를 때워도
누더기 옷일망정 몸 가리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허영게 드러난 속살
부끄러움도 없이 이제는
마구 쭈셔대고
파내고
잘라버린다

늦었나
때늦게 뉘우치지 말고
가려라 숲으로 덮어라
우리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의 몸

(김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김정숙 김용진 박효선 고사일 최영선 김준호
 곽혜자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안정숙 김금순 임보람 최미선 김혜권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박창운 허정윤 문복순 김수연 이광섭 박석희 조항미
 박병구 황원순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김성자 박순성

감사헌금:

박운양 김성자 김진경 배근수 김금순 권채영 김혜권 안종일 정현주
 박두석 박찬정

생일감사헌금: 정채연

구도헌금: 문복순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김정섭	김애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문인옥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이봉배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진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교회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최종원	이명희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구명자	박순희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김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해주십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3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3. **새벽기도회** :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27일)부터 석 주 동안 계속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4. **여선교회 찬양연습** : 절기 예배를 위해 오후 1시부터 찬양 연습을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5. **평신도 임원교육** : 서울연회 사회평신도부에서 남녀선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임원교육을 실시합니다.
3월 28일(화) 오전 10시~12시 / 정동제일교회(벤엘예배당)
6. **신앙실천** :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순절기에는 복음서를 읽으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마가복음을 정독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 헌화 : 방문성 장로 (고 이부방 권사 2주기 추모)

◇ 집 회 안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